

크루즈 선사 등 국내외 여행사

박람회 앞둔 여수 방문 봇물

여수시를 관광하기 위한 국내외 여행상품 개발담당 임직원들의 답사가 줄을 잊고 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얄캐리비언 크루즈 상해지사, 같은 달 11일 미국 크루즈선사인 씨븐 크루즈 선사, 10월 15일 일본 크루즈 4개 선사 등의 크루즈 상품기획 담당 임직원들이 잇따라 여수를 찾았다.

또 28일에는 중국 산동지역 아웃바운드 여행사 상품 기획담당 및 현지 언론인 등 25명이 여수를 방문해 중국인들의 방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답사를 했다.

한국 국·공립중학교교장회 소속 교장단 42명은 내년 수학여행 대상지 답사를 위해 29일부터 이틀간 여수시를 방문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대표단 재정위원 2명과 클럽 웹마스터 1명 등 총 3명이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여수시를 찾았

이들은 지난 5월 이 클럽 정기총회에 여수시가 공식 만 클럽 가입 신청을 함에 따라 다음달 개최될 정기총회 회의에서 신규가입 신청국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양분야 민간단체 및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게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와 관련 유치교섭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발한 국제 교류활동을 통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와 더불어 국제해양관광 레저도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램 투어가 빈번하게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여수시가 201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박람회 개최를 대비해 관광객 유치

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이미 내년에 고급유람선인 씨븐크루즈의 '씨본 프라이드호'

의 여수 입항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족 크루즈 선사에서도 여수 입항을 위한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다.